스마트폰으로 듣고보는
뉴욕기독교방송
cbsn 뉴욕기독교방송
www.cbsnewyork.net
718.414.4848
사장 문석진 목사

기독뉴스
기독뉴스는 뉴욕/뉴저지, 서부, 필라, 델라웨어에서 〈씨존〉이 발행하는 주간기독신문입니다

coway
염명재 (Jane Yom) 917-628-6139

제 193 호 / 2025년 12월 18일 www.kidoknews.net NO. 193 / December 18, 2025

2025 한눈에 보는 올해의 뉴스

미동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미동부 아펜젤러 기념사업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을 초청해 펜실베니아·뉴저지·뉴욕에서 아펜젤러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3일간 열었다. 김정석 감독회장과 여러 교단 지도자들이 축사를 통해 대회의 의미와 선교 140년의 역사적 가치, 분열을 넘어서는 연합과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지역 대회에서는 말씀 선포, 특송, 합창단 공연, 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으며, 감신총장 유경동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비전과 신학도의 사명을 전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는 지역 목회자·원로목사들의 참여와 기도, 감신 합창단의 다양한 무대가 진행되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179호〉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 개최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다민족연합기도운동,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공동 주관으로

1월 31일 LA·OC 지역에서 열렸다. LA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열린 오전 기도회는 예배와 합심기도로 이어졌으며, 강준민 목사는 "국가를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를 주제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와 연합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한민국·한국교회·미국 정부·성경적 가치관 회복·LA 화재 극복 등 다섯 가지 기도제목을 두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했다. OC 은혜한인교회에서도 동일한 기도제목으로 지역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회를 이어갔다. 〈180호〉

2025 니카라과 전도대회 성황

제14차 니카라과전도대회가 2월 21~22일 마사야 지역에서 열려,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를 주강사로 한 말씀 집회와 찬양, 기도 순서들이 진행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첫째 날 집회에서 김 목사는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거듭남'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복음을 전했고, 둘째 날에는 마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죄사슬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죄와 고통의 사슬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다. 양일간 마사야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찬양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뜨겁게 예배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181호〉

KPCA 제 49회 총회 개최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5월 7~8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49회 총회를 열고, 김경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 김종훈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는 개회예배, 회무 보고, 신구 임원 교체, 헌의안 논의,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박태겸 목사는 '희년을 준비합시다'를 주제로 설교하며 다가올 50주년 희년 총회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항존직 시무 정년 연장, 교단 구조 조정, 해외 노회 운영, 탈퇴 선교사 명단 정리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으며, 내년 희년 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폐회했다.〈184호〉

NCKPC, 칸쿤서 제54회 총회

NCKPC(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는 5월 20~23일 멕시코 칸쿤에서 제54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를 열고 한태진 목사를 회장, 반천수 장로를 평신도부회장 등 새 임원을 선출했다. 'NCKPC의 미래를 위한 리셋'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총회는 여는 예배, 말씀과 성찬, 추모식, 환영 및 인사, 회칙 수정, 운영위원회 신설 등 교단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의 권한을 재정비하고, 향후 사역과 선교·교육 계획을 체계화했다. 회칙 수정안은 찬성 63표, 반대 3표로 통과됐으며, 명칭과 정회원 자격이 새롭게 규정됐다. 총회 기간 동안 소그룹 모임, 사무총회, 새 임원 취임식과 폐회예배까지 진행하며 NCKPC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리셋을 다짐했다.〈185호〉

〈11면으로 계속〉

캠퍼스 사역자 워크숍, 치유와 회복의 시간

아시안미션 주최 1박 2일 가평 모임 열려

아시안미션(AM대표 이상준선교사)은 지난 12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한국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국내 캠퍼스 사역자 초청 워크샵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CCC, DSM, DFC, SFC, ESF, YWAM, JOY, CMI, IVF, JDM 등 국내 주요 10개 캠퍼스 선교단체 소속 간사 45명이 참석하여, 치유와 회복의 워크샵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준선교사는 "워크샵은 단순한 전략 회의가 아닌, 지친 사역자들을 위한 위로와 환대에 초점을 맞췄다. 늘 누군가를 섬기고 행사를 주관해야 했던 간사들에게 온전한 쉼을 제공하자는 의미로 열렸다"고 전했다.

개회예배에서 이상준선교사는 창세기 5장22절을 인용한 '왠 므두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풍요와 성공을 쫓는 바알의 질서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 흐름을 거스르며 다른 기준으로 사는 7천 명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SM(빛진자들선교회)의 김미소간사는 "늘 사역을 하다 보면 행사를 진행하거나 섬기는 위치에만 있었는데, 이곳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환대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 따뜻함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CCC(한국대학생선교회)의 박정길간사는 "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교제를 통해 사역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DSM(빛진자들선교회)의 오예은간사는 "워크샵을 통해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사역의 길을 걸어온 선배 간사님들과 교제하며 큰 은혜를 누렸다"며 타 단체 사역자들과의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동부감신 총동문회 각 지역별 정기총회

미동부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장재웅목사)는 2026년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각 지역별로 진행한다.

장재웅목사는 "대강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모든 미동부 감신 동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2026년 신년하례와 정기총회에 동문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동북부 지역은 2026년 1월15일(목) 오전11시, 장소는 뉴욕청암교회(차철회목사)-148-28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연락처는 646-270-5522이다.

동중부 지역은 2026년 1월15일(목) 오전11시, 장소는 한강(Han Gang Restaurant)-724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연락처는 571-242-0191(김성도목사)이다.

동남부 지역은 2026년 1월15일(목) 오전11시, 장소는 아틀란타한인교회(권혁원목사)-3205 Pleasant Hill Rd, Duluth, GA 30096, 연락처는 608-772-3755이다.

장재웅목사는 "행사 후에는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며 참석 여부를 해당 연락처로 미리 알려주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다"며 총무 안성천목사(732-586-4675)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미동부 감신 총동문회 www.mtueastusa.org 회장 장재웅목사(410-200-3859)나 서기 김한길목사(973-307-8794)에게 하면 된다.

이승만뉴욕지회 송년감사예배

장학생 10명에 장학금 수여… 건국정신 계승 강조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노기송 목사)는 12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2025년 송년감사예배와 제2회 우남장학금 시상식을 개최했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조동현 장로의 기도, 뉴욕장로성가단의 찬양, 윤세웅 목사의 설교, 황일봉 장로의 특별연주, 김영환 목사의 헌금기도, 김명옥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윤세웅 목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중심으로 이승만 박사의 희생과 건국 준비 과정을 강조하며 "그의 공헌을 올바르게 기억하자"고 전했다.

2부 시상식은 이종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소망크로마하프 찬양선교단의 연주, 노기송 목사의 인사, 권케더린 목사의 심사평, 장학금 수여, 김영환 전도사의 축가, 뉴욕한인회21희망재단박정희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권케더린 목사는 "이번 장학생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과 결심을 강조하며 더 성숙한 내용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32명의 후원자들이 기금을 모아 10명의 학생에게 각 1천 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노기송 회장은 "학생들이 이승만 박사의 네 가지 건국정신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정신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서 이명석 회장은 "3세대가 함께 애국심과 건국 이념을 나누는 자리"라며 차세대에 대한 기대를 전했고, 변종덕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일 회장은 "한국 발전의 토대 위에 제2의 이승만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뉴욕교협 제52회기 임원진 발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목사)는 12월9일(화) 제52회기 임원을 발표했다.

허연행목사는 새 임원 발표와 함께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제52회기를 시작한다. 허락하신 한해를 은혜 가운데 출발한다. 회원들의 기도와 지도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임원은 회장 허연행목사, 부회장 김용익목사, 평신도부회장 송윤섭장로, 총무 김명옥목사, 서기 박진하목사, 부서기 김일태장로, 회계 박해용장로, 부회계 김정숙목사, 수석협동총무 김영환목사 등이다.

웨체스터교협 29회 정기총회

신임 회장 송인규목사

웨스트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는 12월2일(화) 오전 11시 뉴욕한인제일교회(송인규목사)에서 제29회 정기총회(이하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송인규목사를 선출했다.

신임임원은 회장 송인규목사(뉴욕한인제일교회), 총무 서민호목사(뉴욕능력감리교회), 서기 임일송 목사(뉴욕백민교회), 고문 박효성목사노기송목사 등이다.

총회 1부 예배는 송인규목사의 사회, 서민호목사의 기도, 전 구목사의 설교, 임일송목사의 봉헌기도, 최기성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2부 회무는 송인규목사의 행사 및 재정보고 후 합심기도(교협을 이끌고 나갈 2026년도의 신임회장단을 위해박효성감독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각 회원 교회마다 부흥이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원 선거에 들어갔으며 교협 행사에 관해서는 회원목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다.

총회 회무는 전 구 목사의 마침기도로 모두 끝났고 참석자들은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준비한 오찬을 들며 친교와 교제를 나누었다.

웨체스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는 뉴욕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15여개의 한인교회들이 소속된 가운데 연합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며 교회와 목회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목회 정보를 교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벧엘국제학교, 캄보디아 중학교 과정 개학

퀸즈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와 함께 지역사회 교육 선교 시작

퀸즈장로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벧엘국제학교 재단이사회는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에 위치한 벧엘국제학교(Bethel International School)가 지난 11월25일(화) 오전8시 중학교 과정 입학식 및 개학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중등 교육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벧엘국제학교는 퀸즈장로교회(고 김성국 담임목사)가 파송한 선교지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일훈목사와 박수영선교사의 지도 아래 지난 수년간 유치원과 초등 과정의 견고한 토대를 쌓아 왔다.

입학식에는 시엠립 교육청소년체육부교육감(Director of Department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리 분나(Ly Bunna)를 비롯한 교육국 관계자, 지역 행정 지도자, 경찰서장, 보건소장, 인근 초등학교 교감 등 다양한 기관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행사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학부모들로 가득 차, 벧엘학교가 지역사회 안에서 차세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리 분나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벧엘국제학교가 지난 해 보다 더욱 성장했으며 학부모들의 밝은 표정과 참여가 매우 인상적이다. 학교가 지역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사역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행사 후에는 교육청 관계자, 교사진, 지역사회 지도자, 스태프가 함께 오찬을 나누며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또한 퀸즈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벧엘국제학교는 현재 총 28명의 교사 및 스태프가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중학교 과정 운영을 위해 12명의 전문 과목교사가 새롭게 배치되었다. 중학교 교사들은 크마에(국어)·영어·수학·역사·지리·생물·지구·과학·물리·화학·도덕·보건 등과 같은 주요 과목을 담당한다. 모든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의 정규 과정으로 진행되며 각 과목별 전문가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기초 및 심화 학습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또한 9~10월의 방학 기간에는 인근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무료 공개수업(크마에·영어·수학 등)을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중등 과정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벧엘국제학교는 중등교육 개설을 넘어 고등학교 과정 및 대학 과정(전문대 수준 포함)까지 설립을 준비하며 캄보디아의 기독교교육 선교사역을 장기적으로 확장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 규모 확장을 넘어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복음과 교육으로 세우는 선교적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학교 측은 "벧엘학교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교육의 통합적 모델을 세우며 캄보디아와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 비전을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벧엘국제학교에 관한 문의는 퀸즈장로교회 해외선교 위원회, 벧엘국제학교 재단이사회(kapcqmission@gmail.com)로 하면 된다.

국제장애인선교회, 연례행사 개최

35년 사역 감사와 동역자·후원자들에 감사 전해

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노기송 목사, 총무이사 임선숙 사모) '우리서로잡은손'은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12월 11일 오전 10시 플러싱 유니온플라자 요양원에서 연례행사를 진행했다.

노기송 목사는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35년 동안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후원과 기도의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임선숙 사모는 "우리서로잡은 손은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역"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1부 예배에서 전구 목사(웨체스터연합교회)는 시편 69편을 통해 "다윗이 절망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듯, 우리의 삶 속 감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고 전했다.

이경원 장로(이사장)는 "35년간 장애인, 병원·시설 환우들, 소외된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의 후원 덕분"이라고 인사했으며, 이어 감사패 전달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음악회는 테너 신남섭의 독창, 트럼펫 유요선의 연주, 소프라노 유경화의 찬양, 핸드벨 앙상블, 뉴욕밀알여성선교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이어졌다.

▲주소: 41-25 163rd St, Flushing, NY 11358
전화: (718) 353-3791
이메일: woht@wohtusa.org
웹사이트: www.wohtusa.org / www.imdusa.org

GMC 한미연회, '기도시대' 컨퍼런스 개최

전 세대 400여 명 참석하며 영적 회복 다짐

GMC(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기도시대'를 주제로 20~40세대를 위한 커넥트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GMC가 추구하는 '성서적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비전 아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성도·가정의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미 전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성인 226명, 청소년 60명, 어린이 71명 등 약 400여 명으로, 온세대사역(All Generation Ministry)을 보여주는 전국 단위 집회로 자리매김했다. 참석자들은 "말씀 중심의 세계관과 성서적 거룩함이 개인과 가정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강사 최상훈 목사(〈하나님의 DNA〉,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는 "율법이 아닌 은혜에서 출발하는 기도"와 "새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신앙 자세"를 강조했다. 어린이·청소년 집회와 가정예배 세미나, 청년 특강(김기리·문지인 부부), 소그룹 모임 등도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폐회예배에서는 목회자들이 가정별 안수기도로 참가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글로벌감리교회는 UMC의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흐름 속에서 성경적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갱신운동으로 시작된 새 웨슬리안 교단이다. GMC 한미연회는 성서적 결혼관('한 남자와 한 여자')을 바탕으로 가정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커넥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 '복음본색', 2025년에는 '기도시대'라는 주제로 한인교회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뉴욕한인목사회, 목사부부성가단 창단

첫 연습 진행… 12월 14일 창단 연주 예정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박희근목사)는 '목사부부성가단'을 창단하고, 12월2일(화) 저녁 8시 20여명의 목사와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빌립보교회(박희열목사)에서 첫 번째 연습의 시간을 가졌다.

목사부부성가단은 단장 박희근목사, 지휘 김인식목사(뉴욕늘기쁜교회)이며 반주는 김애경사모(김영인목사 부인)가 맡는다.

박희근목사는 "비가 오는 늦은 시간임에도 참석한 단원들을 환영한다. 목사부부성가단은 뉴욕교계의 애경사에 직접 찾아가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찬양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성가단이 되자"며 "1월부터 하는 정기연습에 목사부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악을 전공한 김인식목사의 지도 아래 단원들은 몸풀기로 연습을 시작했다. 김목사는 "호흡, 발성, 공명이 노래에 중요하다. 첫 연주가 얼마 남지 않아 바로 연습을 하겠다"며 파트를 나눈 뒤 찬양연습에 들어갔다.

한편 목사부부성가단은 12월 14일(주일) 오후5시, 뉴욕동원장로교회(박희근목사)에서 뉴욕목사회 54회기 이·취임식과 성탄축하예배를 겸한 자리를 통해 첫 번째 찬양 연주를 하게 된다.

뉴저지밀알선교단, 추수감사 디너 개최

장애인·은퇴사역자 돕는 '마더 홈' 건립 위해 기도와 후원 호소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목사)은 11월29일 오후6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제21회 밀알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를 열었다.

강원호목사는 "해마다 추수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밀알 추수감사행사가 기다려진다는 분들이 있다.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이 추수감사절의 따스함을 이기지 못하듯 행사를 준비하며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 미약하지만 작은 불씨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김동권목사(감사절 행사위원장)는 "밀알선교단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는데 힘쓰고 있다. 특별히 은퇴한 선교사,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마더 홈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 사역자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장애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밀알이 선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너 행사는 래리 김의 사회로 진행됐고, 밀알친구들의 태권도 시범과 합창 등이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발레리나 공연 및 새들부룩시장, 경찰서장 등의 축사, 감사장 수여, 고형원목사의 찬양, 봉사자 간증, 어머니 간증, 한국밀알복지재단 영상 상영, 정형석목사(한국밀알복지재단 상임이사)의 간증, 마더 홈 소개,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의 찬양 등으로 진행됐다.

뉴저지 새들부룩 화이트시장은 "우리 도시를 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준 밀알선교단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밀알선교단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사랑의교실, 밀알컬리지, 밀알예배 등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의 기도와 은퇴 선교사의 기도가 만나는 장소인 마더 홈(Mother Home)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 후원연락처:201-530-0355, 201-638-5148.

원프로젝트남성합창단 크리스마스캐롤 연주회

한국 서울에 있는 신암교회(담임 김요섭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는 12월10일(수) 오후7시30분 원프로젝트남성합창단(이하 합창단지휘 김성균)을 초청해 수요찬양예배 중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회를 열었다.

출연은 지휘 김성균, 피아노 이정미, 오르간 김경희, 테너 최승원 등 39명의 남성합창단이다.

이날 연주된 프로그램은 △The First Noel △Carol of the Bell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O Holy Night(테너 독창 최승원) △Feliz Navidad △Joy to the World △주의 기도 등이다.

원프로젝트 남성합창단은 지난 2018년 뉴욕카네기홀에서 개최된 뉴욕기독교방송(CBSN사장 문석진목사) 주최 세계찬양대합창제에 참가해 매력적인 남성합창의 진수를 보여주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합창단은 오는 12월 22일, 일본 야마구치현에 위치한 바이코학원대학교(梅光学院大学)에서 성탄절 기념 초청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는 자리로, 일본 지역 사회와 대학 캠퍼스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성탄 감사 찬양예배

지역교회부흥선교회(회장 허윤준 목사)는 12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에서 2025년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찬양예배를 열었다.

1부 예배는 허윤준 목사의 인도 아래 박헌영 목사(퀸즈순복음교회)의 기도, 김영환 찬양사역자와 이희정 소프라노의 특송,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연합회) 회장 이준성 목사의 말씀, 김희숙 목사(연합회 부회장)의 헌금기도, 이만호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하말씀, 송병기 목사(뉴욕한인원로목사회장)의 감사말씀, 허윤준 목사의 인사, 안창의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준성 목사는 고린도후서 1장 34절 '위로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홀사모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남편의 자리를 채워주신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만호 목사는 "홀사모와 원로목사님들은 부모와 같은 분들"이라며 선교회의 섬김을 축하했고, 송병기 목사는 매년 원로목사와 사모들을 대접하는 선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허윤준 목사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허윤준 목사는 "지역교회가 부흥해야 세계교회가 부흥한다는 취지로 20년 전 설립된 선교회를 위해 함께해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2부 성탄축하찬양은 G to G 박승호·이성기 집사의 찬양, 신동기 목사·신주희 사모의 트럼펫 연주(오 거룩한 밤), 송병기 목사의 섹소폰 연주(천사들의 노래가오 거룩한 밤), 크로마하프연주단(이만호 목사, 이진아 목사, 양혜영 권사)의 연주(기쁘다 구주 오셨네탄일종창밖을 보라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로 이어졌다.

3부는 이만호 목사의 합심기도, 이용걸 목사(불참·디모데목회자훈련원 원장)의 장학금 수여, 이규형 목사(연합회 직전회장)의 축복 및 식사기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산수갑산2에서 오찬을 나누었다.

이날 허윤준 목사는 홀사모와 원로목사회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복음을 땅끝까지' 기독뉴스 선교 후원 요청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할렐루야! 황폐하고 메마른 이민 사회 속에서도 목회와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뉴스는 2009년 창간 이후 종이신문, 뉴욕기독교방송(CBSN), 유튜브, 카카오 채널, 이메일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를 연결·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독뉴스의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지역 교회와 선교 현장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다음 세대에 복음의 이야기를 잇습니다.

■왜 지금 후원이 필요할까요

△현장 취재와 제작, 송출 인프라 유지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와 선교지의 이야기를 더 넓고 깊게 전하려면 안정적인 정기후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기독 언론의 목소리를 지키는 일은 곧 교회와 선교를 지키는 일입니다.

■후원 사용처

△현장 취재 및 제작 △방송·디지털 송출 인프라 유지 △미자립 교회·선교 단체 보도 지원 △공익 캠페인 및 기획 콘텐츠 제작

■후원 방법

▷미국 계좌 이체 Chase Bank 계좌번호 260896639

▷체크 수취인 Kidok News, 주소 170-0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Zelle kidoknewsNY@gmail.com

▷Venmo @CzoneUs

▷PayPal @CzoneUS

모든 후원에는 연말 세금 공제용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한국: 농협 예금주 MOON PHIL 계좌번호 356-1418-5746-13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편집·제작·송출 전 과정에 주의 보호와 공급이 있게 하소서

△교회와 선교지의 필요를 잘 듣고 섬기게 하소서

■ 동참의 마음 하나하나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정기·일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문의 718-414-4848

기독뉴스 발행인 문석진 목사/대표 김명욱 목사/직원 일동 드림

[CBSN 종합뉴스] 12월 13일(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13일(토) CBSN 주간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 단순 교통위반 한인도 범법 불체자로 체포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단속을 통해 체포한 한인 등 불법체류 범죄자들의 상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 총 1만 명에 육박하는 추방 대상자 명단을 온라인에 전격 공개했다. 그러나 이 명단에 포함된 한인 중에는 체포 이유가 단순 교통위반으로 표시된 사례도 있어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DHS는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wow.dhs.gov)를 지난 8일 개통했다며 "전국에서 체포된 범법 불체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초기 공개분에는 9,845명의 체포 기록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체포자의 이름, 얼굴 사진, 혐의, 체포 지역, 출신국 등을 검색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DHS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살인, 폭행, 강간, 아동 학대, 마약 밀매, 무장 강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집중 단속해 왔으며, 이번 공개에는 중범죄뿐 아니라 음주운전(DUI), 절도, 신분 도용, 교통법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혐의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 명단에는 최소 5명의 한국 출신 체포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네소타주 파리보에서 체포된 이모씨는 성폭행 혐의로 등재돼 있으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체포된 이모씨는 주거침입·절도, 위조, 사기, 마리화나 판매, 차량 절도, 크레딧카드 불법 사용, 공모 등 복수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 빅스프링에서 적발된 백모씨는 절도, 음주운전, 돈세탁 혐의가 기록돼 있으며, 같은 휴스턴 지역에서 체포된 손모씨는 교통 관련 위반이 이유로 등재돼 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체포된 강모씨는 신분 도용과 사기 혐의로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주별 체포자 규모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가 1,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42명, 뉴저지가 109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DHS는 "이번 사이트 개설로 미국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범죄 불체자가 활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언론이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동안 ICE와 CBP 요원들은 미국 사회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더 이상 언론 보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체포자들의 범죄 전력과 체포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DHS는 또한 ICE·CBP 요원에 대한 폭행이 1,150% 이상 증가하고 차량 돌진 공격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취업허가서 유효기간 18개월로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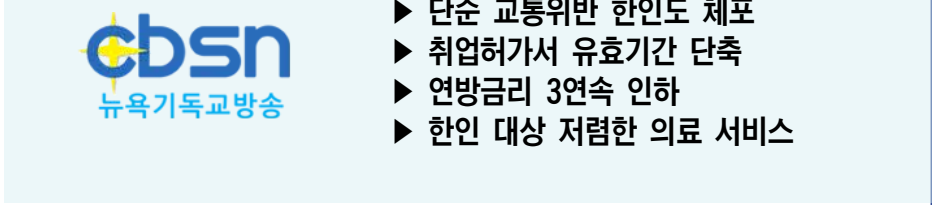
영주권 신청자 등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모든 ▲영주권 신청자 등을 비롯해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서(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족이나 취업 등 영주권 발급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한 모든 이들은 취업허가 최대 유효기간 단축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USCIS는 이번 단축 조치가 미국 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더 자주 진행하기 위함으로, 사기 방지와 '미국에 위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외국인을 조기 탐지해 추방 절차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난 5일 이후 접수된 EAD 신규 및 갱신 신청은 물론, 현재 심사 계류 중인 신청 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발급된 EAD는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지만, 재신청 시에는 최대 18개월까지로 제한된다.

▶연방금리 '3연속' 인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 **단순 교통위반 한인도 체포**
- **취업허가서 유효기간 단축**
- **연방금리 3연속 인하**
- **한인 대상 저렴한 의료 서비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이번 FOMC에서도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은 9, 10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0.50%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동결 입장을 냈다.

FOMC에서 3명이 다른 의견을 낸 건 6년만이다.

내년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간 이견이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준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추가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도와 시기"는 지난 10월에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보험료 급등 한인들에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크리스천 비영리단체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Crossway Health Share·회장 김경호)와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는 8일 퀸즈 플러싱 뉴욕한국일보 본사 사옥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회원 모집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수혜자들의 부담이 2~3배 커진 가운데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와 퀸즈한인회가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들과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한층 더 저렴한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 하기로 한 것.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는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한 벌금 면제기관으로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주(뉴저지,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메사추세츠, 로드아이랜드 주)로 부터 벌금이 면제 된다.

즉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 회원 가입만으로 벌금 면제는 물론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을 통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경호 회장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평균 26% 인상 예고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혈액 분석 연구소 '앤더슨 랩'(Anderson Labs·대표 마이클 서 신경내과 전문의)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이어 이날 퀸즈한인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이미 검증된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의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을 한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이라고 밝혔다.

이현탁 회장도 "체류신분이나 가난을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퀸즈한인회 여러 행사에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의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을 홍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 말했다.

지난 2021년 출범 후 지속 성장하고 있는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가 내놓은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은 4가지로 회비는 ▲베이직 1인 40달러(부부 80달러/가족 120달러) ▲베이직 플러스 1인 80달러(부부 160달러/가족 240달러) ▲어드벤티지 1인 165달러(부부 290달러/가족 410달러) ▲컴플릿 1인 210달러(부부 370달러/가족 480달러)이다.

이 가운데 어드벤티지와 컴플릿 프로그램은 의사비, 치료비, 검사비, 응급실, 출산, 수술, 입원이 가능하며 베이직 플러스와 베이직 프로그램은 예방검진이 가능하다. 또한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는 회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회원 카드 정보와 주소 변경, 의료비 청구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CHS 회원가입 문의 917-306-7201 혹은 www.crosswayhealthshare.org

매일 오전, 기독뉴스가 카톡과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CBSN 뉴스' 를 무료로 받아 보시려면 이메일 Kidoknews-NY@gmail.com 또는 전화 718-414-4848로 신청해 주세요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

11월3일부터 예약 시작합니다

중요 선교신앙 성지

-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 최초로 발을 디딘 빌립보 네압볼리
-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전도한 빌립보 감옥터
-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란 뜻으로 유명한 메테오라 수도원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고린도교회
- 문서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두란노서원
- 사도요한이 복음서를 기술하고 생을 마감한 에베소
-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빌라델비아교회, 사데교회
-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과 아크로 폴리스 등 아테네 유적지 체험
-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로 유명한 트로이목마
-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터키 이스탄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월23일-4월1일 2026 $2300 + 항공

cbsn 뉴욕기독교방송

- 호텔, 식사, 차량, 현지 입장권, 기사, 가이드 비용 포함
- 가이드, 기사 팁(1인당 $100)은 별도

문의/신청 : 718.354.5545 / 718.414.4848

* 문석진 목사가 동행합니다.

교회탐방

“예수님을 본 받는 교회”

교회탐방 뉴욕만나교회(담임 정상철목사)

■교회소개

뉴욕만나교회(이하 만나교회)는 1985년 1월 플러싱 사택에서 이승근목사의 가족과 3명의 초신자가 모여 교회를 설립하였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만나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목적에 부합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힘쓰고, 전도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다.

■교회 표어와 목표

2025년도의 교회 표어는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는 만나교회”(살전1:6~7)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만나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2026년도의 표어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만나교회”(엡5:1~2)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변화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주요 교회사업

만나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로 사역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실천하고 있다. 주일에는 오전 11시에 대예배(KM)와 함께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부서 예배가 드려지며, 오후 1시에 영어예배(EM)를 드린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새벽예배와 수요일 저녁 7시30분에 수요저녁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다. 주일과 주중에는 각 목장별 모임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평일에는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

■선교와 나눔

만나교회는 국외 선교로 탄자니아(김형백선교사), 말라위(현광섭선교사), 그리스(박영란선교사), 캄보디아(김옥자선교사) 외 4곳과 국내선교로 선의선교회, 한민자선선교회, 국제장애인선교회, 뉴욕나눔의집, 뉴욕스페니쉬선교회 외 여러 곳을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다.

■담임목사 소개

정상철목사는 2007년 12월2일에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빌2:5)가 되기 위해 뉴욕예본교회를 개척하고 사택에서 식구 포함 7명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며 담임목사로 섬겼다. 2024년 1월1일

뉴욕예본교회와 뉴욕만나교회가 합병하여 정관호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2005년에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M.Div)를 졸업하고, 2006년 10월13일 미국장로교(PCA) 한인동부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필라시온장로교회(1999-2004), 뉴욕효신장로교회(2005-2007)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다.

■교회연락처

주소: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문의: 917-392-7063 웹사이트: www.nymanna.org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2026년도 봄학기 신입생.편입생 모집 (뉴욕 , 뉴저지 캠퍼스)

본 신학대학(원)은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서 1978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 선교사, 교수 등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본 대학(원)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분은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장학금 (성적, 근로, 동문장학금)과 해외선교사를 위한 온라인 수업과 뉴저지, 뉴욕, 아프리카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예배시대에 전문화된 목회자를 세워가는 전통있는 교단 신학교입니다.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NY)

학 장 김종훈 박사 이사장 노성보 박사

학과	입학자격
목회학박사(D.Min)	석사학위 소지자(LA 미주장신 공동학위)
신학석사 (Th.M 2년)	교역학 석사학위 소지자
교역학석사 (M.Div 3년)	학사학위 소지자
신학사 (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기독교 상담과(2년)	고등학교 졸업자, 학사학위소지자
기독교 교육과(2년)	고등학교 졸업자, 학사학위소지자

강의장소	강의시간
뉴저지 캠퍼스	화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오후
뉴욕캠퍼스	화요일 오후
온라인 캠퍼스	타주 및 해외거주자

2026년도 봄학기 입학문의
(뉴저지캠퍼스,뉴욕캠퍼스,온라인수업)

학교 e-mail	NYPTSEDU @ GMAIL.COM
학교 HOMEPAGE	WWW.KPCANYPTS.ORG
학교 ADDRESS	120 W. CHURCH ST. BERGENFIELD, NJ. 07621
입학전형일	2026년 1월22일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입학서류	본교 소정양식(학교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입학문의		
교무처장	조태성 박사	718-598-3602
행정처장	김영숙 목사	908-705-3142

이/창/배/칼/럼

베들레헴의 별빛 아래: AI 시대, 자기중심적 풍조를 비추는 성탄의 진실

이창배 목사
유크디지털뉴스 발행인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AI 인공지능 시대는 경이로운 기술 발전만큼이나 깊은 윤리적, 존재론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연결성과 고도화된 개인화 서비스가 낳은 자기중심적인 인생관, 윤리관, 가치관의 심화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서, 우리는 2천 년 전 성탄 기사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던 세상의 모습과 오늘날 AI 시대의 모습을 연결해 그 일깨움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베들레헴의 밤과 오늘날의 초연결 사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언뜻 보기에 오늘날의 첨단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칙령에 따라 모든 백성이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으로 움직여야 했던 그 시대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질서와 통제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통치자의 필요와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속품이었습니다.

오늘날의 AI 시대 역시 유사한 초연결 시스템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을 통해 겉으로는 극도의 개인화를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과 예측,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사, 선호, 심지어 감정까지도 알고리즘에 의해 끊임없이 추적, 분류, 제어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취향'에 최적화된 정보 거품(Filter Bubble) 속에 갇히면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진실'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자신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깊은 자기중심적인 오해에 빠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2. '방 없음'의 시대: 소외와 고독의 심화

성탄 기사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있을 방이 없으므로" (누가복음 2:7) 구유에 아기를 뉘어야 했던 상황은, 당시 사회가 약자나 이방인을 위한 공동체적 여백을 상실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호적 등록이라는 국가적 의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환대조차 거부된 것입니다.

AI 시대의 자기중심적 풍조는 현대판 '방 없음'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능형 기술은 효율성과 속도를 극대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연대와 따뜻한 환대의 공간을 축소시킵니다. 알고리즘은 '나'와 관련 없는 것을 가차 없이 걸러내고, '나'의 만족도와 효율에 기여하지 않는 타인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은 공동체의 필요보다 개인의 만족을 앞세우며, 타인의 고통이나 소외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윤리적 판단을 대체하면서, 마구간에 밀려나야 했던 그 때의 소외와 거절의 풍조가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정교하고 냉정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왕의 탄생과 '가장 낮은 곳'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성탄 기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윤리적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가장 화려한 궁궐이나 부유한 여관이 아닌,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곳인 마구간의 구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모든 권력 구조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기중심성이 심화된 AI 시대의 가치관은 '최고 효율', '최대 성공', '개인 최적화'를 추구하며 수직적 성공과 우월성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자아실현만이 최고의 선(善)으로 여겨지며, '나를 위한' 기술과 시스템만이 가치 있다는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판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유의 탄생은 우리에게 전복적인 겸손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권위와 가치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AI가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AI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대에, 계산되지 않는 환대와 자기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윤리적 가치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4.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자기중심을 벗어난 초월적 지향

성탄을 경배하기 위해 달려온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나는 두 가지 초월적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의 '순종적 겸손': 밤새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자신의 생계와 안락을 뒤로하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는 '나의 이익'과 '나의 효율'을 중심에 두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궤도를 벗어나, 초월적인 소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겸손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지적 탐구와 경배': 먼 이방 땅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성취와 지위를 내려놓고, 그들의 지적 탐구의 결론인 '참된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이는 AI가 모든 지식을 제공하는 시대에, 지식 그 자체를 숭배하는 자기중심적인 오류를 경계하고, 지식의 최종적인 목적은 더 높은 가치와 진리에 대한 겸손한 경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AI의 편리함과 효율이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목자들의 타인을 향한 겸손한 섬김이나 동방박사들의 진리에 대한 초월적 지향을 쉽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가치관은 **'나의 데이터'**와 **'나의 알고리즘'**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AI가 예측할 수 없는 숭고한 희생과 초월적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5. AI 시대에 성탄이 주는 일깨움

결론적으로, 베들레헴의 성탄 기사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적이며 온화한 일깨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 없음'의 풍조를 깨는 환대: AI가 효율을 위해 소외시키는 세상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위한 '방'**을 내어주는 환대의 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이익과 무관한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연대를 의미합니다.

둘째, 구유의 겸손을 통한 가치 전복: 자기중심적인 성공과 우월성의 가치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임했던 겸손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향력과 의미는 AI가 계산할 수 없는 나눔과 희생에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초월적 진리에 대한 지향: AI가 제시하는 개인 최적화된 정보 거품을 깨고, 목자들과 박사들처럼 자신을 초월하는 숭고한 가치와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탄의 별빛은 과거의 어둠뿐 아니라, AI 시대의 현란한 자기중심적 풍조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명확히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효율과 고립을 넘어 사랑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뉴스, 뉴욕기독교방송 후원자 명단(씨존 사역 동참자 포함) [11-12월 2025]

기독뉴스와 뉴욕기독교방송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방송과 문서선교 활동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어린양교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제자삼는 교회	Kim, Hee Jin	김미경
뉴욕평화교회	뉴욕십자가교회	뉴욕그레잇넥교회	최현진	김소순
뉴욕예일장로교회	뉴욕빌립보교회	사랑으로사는교회	최진순	임에스더
푸른초장교회	뉴욕주는교회	Dobbs Ferry Ko-	최기성	최자영
뉴욕신광교회	뉴욕성서교회	rean Church	최운봉	곽경신
뉴욕수정교회	뉴욕만나교회	남가주교협	안근희	민삼순
에버그린장로교회	뉴욕한인연합교회	팔복선교회	이호순	이지은
후러싱제일교회	찬양교회	스마일약국	손애니	이호순
하은교회	뉴욕방주교회	제일장의사	송진순	이미섭
한인동산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에스더	문지은	고윤정

기독뉴스
전자신문
교계 뉴스·칼럼,
이제 더 가까이 만나보세요
월 5불로 문서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www.kidoknews.net
전자신문 구독718-414-4848

KPCA 서북남노회 & LA 노회 합병감사예배

합병선언문 '공동책임과 차세대 리더쉽 양성' 공표

KPCA 서북남노회 & LA 노회 임역원의 합병감사예배 후 기념촬영

KPCA 해외한인장로회 서북남노회(노회장 박상근 목사)와 LA노회(노회장 김신 목사) 합병감사예배가 지난 12월 8일(토) 11시 로스엔젤레스 소재 주향교회(담임 김신 목사)에서 개최됐다.

두 노회가 공표한 합병선언문 3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언약적 결단이다. 둘째로, 공동책임과 차세대 리더쉽 양성, 선교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셋째로, 연합, 은혜, 하나님 나라의 우선됨을 증거한다.

예배에서 박상근 목사는 시 133:1-3 본문을 중심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제목 설교에서 "합병이 단순한 조직의 통합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다"고 강조했다.

연합감사예배는 사회 김신 LA 노회 노회장, 개회 선언, 기도 노승일 장로(서북남노회 회계), 성경봉독 백선용 목사(LA노회 부서기), 말씀 박상근 목사, 특별찬양 이현동 목사/고의용 목사, 합병선언문 낭독 임상근 목사(LA노회 서기), 서명예식과 하나됨 LA노회 노회장 & 서북남노회 노회장, 축사 배문성 장로(KPCA 장로부총회장)/노영호 목사(서노회 노회장), 광고 안경희 장로(LA 노회 회계), 축도 김석훈 목사(서중노회 노회장),

성탄절의 기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서 유일했던 LA 코리아타운 소재 한인 구세군 교회인 "구세군나성한인교회"가 폐쇄된지 1년이 지나갔다. 2025년 에도 한인 타운 마켓 주차장에는 예수님의 성탄절 기쁨, 감사와 의미를 알리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샌퍼난도밸리교협 2025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샌퍼난도밸리교협 2025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 이태훈 목사 부회장 김종경 목사

샌퍼난도밸리교역자협의회 2025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1일 (목) 오전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신임회장 선출 및 주요회무를 마쳤다.

정기총회는 1부 예배 2부 회의 3부 친교로 진행됐는데, 특별히 3부 에서는 사모들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로 진행돼 참석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신임회장 이태훈 목사(밸리주하나교회)는 "증경회장단이 회장으로 추천해 주심에 깊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임회장 최주철 목사(은혜가샘솟는교회)는 "동역자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연합사업이 가능했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오명찬 목사는 시편 136:1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삶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라, 과거의 잃어버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사회 최주철 회장, 찬양인도 신바나바 찬양부장, 기도 이태훈 부회장, 설교 오명찬 목사, 광고 곽덕근 협동총무, 축도 조남민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2026년도 임역원 조직]

〈자문위원〉고문: 최주철 목사, 감사: 김영일 목사 〈임원〉 회장: 이태훈 목사, 부회장: 김종경 목사, 총무: 하모세 목사, 부총무: 오명찬 목사, 협동총무: 곽덕근, 이정현, 신바나바 목사, 서기: 변은광 목사, 부서기: 나형길 목사, 회계: 서오석 목사, 부회계: 전지승목사

남가주교협 제56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55대 샘신 회장 이임, 56대 김은목 회장 취임

남가주교협 제56대 회장 이취임, 김은목 신임회장(좌), 샘 신 이임회장(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1월 25일(주) 오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남가주교협 증경회장)에서 제56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취임식에서는 남주교협 55대 회장 샘신 목사(샘중앙커뮤니티교회)가 이임하고, 제56대 회장에 김은목 목사(평화교회), 수석부회장에 김대준 목사(비전동행교회)가 각각 취임했다.

김은목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람데오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샘신 이임회장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예배 설교를 맡은 진윤철 목사는 창세기 6장 8절을 중심으로 "그러나 노아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입는 남가주교협이 되라"고 강조했다.

감사예배는 1부 예배, 2부 이취임식, 3부 친교 순서로 드려졌다. 예배는 사회 김은목 신임회장, 대표기도 김대준 신임수석부회장, 성경봉독 권영신 장로, 설교 진유철 목사, 헌금기도 정요한 목사, 광고 이충희 목사, 축도 정해진 본회 증경회장이 맡았다.

2부 이취임식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사회 최영하 사무총장 △ 기도 한기형 본회 증경회장 △ 회장이취임 △ 취임패공로패감사패증정 △ 신임회장단 소개 △ 협회기이양식 이취임회장 △ 권면 민종기 본회 회장 △ 영상축사 고경환 한기총회장 △ 축사 이창남 목사/이득표장로 △ 차세대목회자 후원금전달식 최영봉 본회 이사회 총무 △ 폐회축복기도 최학량 본회 증경회장 △ 친교기도 이성우 본회 부회장

북미주 지역 한인 Senior CBMC 준비

남가주 CBMC 증경회장단 주최 세미나개최

남가주 CBMC 증경회장단 주최, 제1차 Loyalty CBMC Committee Seminar

기독실업인회 CBMC사역에 헌신했던 시니어들이 북미주한인시니어CBMC 창립을 준비하는 제1차 Loyalty CBMC Committee Seminar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남가주CBMC 증경회장단(준비위원장 모종태 장로, 총무 이봉우 장로) 주최로 지난 12월 6일 오전, LA 코리아타운 소재 MBC 방송 빌딩 내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1부 경건회, 2부 세미나 및 회장단 상견례와 좌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경건회는 사회 오승훈 준비위 지도목사, 기도 김경배 남가주CBMC지회 회장(미주서부 KCBMC 총연합회), 말씀 남가주교협 증경회장 김재율 목사, 축도 홍성관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2부 세미나는 이봉우 증경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첫번째 순서로 김성기 북미주CBMC 총연합회장의 인사말과 "복음, 소명, 일" 강의가, 두번째로는 이정기 북미주CBMC 제5대 총연합회장의 "섬김의 10가지 원칙"강의가 각각 계속됐다. 이어서 허인욱 선교사의 "평신도 양육 선교" 강의 후에 이용진 남가주CBMC 연합회장(북미주 CBMC 총연합회)의 개인 간증이 있었다.

특별 순서인 남가주 CBMC 증경회장단 상견례는 최종혁 증경회장이, 세미나 좌담회는 최종원 증경회장이 각각 사회를 맡아서 진행되었다.

시니어지회 준비관계자들은 인생의 후반기에서 각자의 삶과 소명의 일터에서 복음전파에 헌신할 CBMC 시니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SS 스본스 칼럼

자연의학이 말하는 건강한 발의 원리

"푹신한 신발의 착각, 관절 통증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발이 부드럽고 푹신하면 무릎과 허리에도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연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절 통증이 잦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푹신함의 착각'에 있습니다.

해변 모래사장을 걸어본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래는 부드럽지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금세 피곤해지고 허리가 뻐근해집니다. 발이 흔들리는 바닥 위에서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푹신한 신발도 이와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꺼지듯 들어가 중심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릎·고관절·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신을 때만 편해 보일 뿐, 실제로는 관절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발바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땅의 단단함과 기울기를 감지해 몸이 균형을 잡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쿠션이 지나치게 두꺼우면 발이 지면을 정확히 느끼지 못하고, 뇌는 바닥을 확인하려는 본능 때문에 발을 더 세게 내딛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두꺼운 쿠션 신발이 오히려 뒤꿈치 충격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을 줄여 준다고 믿었던 신발이 오히려 충격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발은 이미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뒤꿈치의 지방 패드, 탄력 있는 족저근막, 아치 구조는 충격을 흡수하고 몸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어주는 천연 스프링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이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활용해야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꺼운 신발이 이 기능을 대신하면 발은 점점 제 역할을 잃어갑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대니얼 리버먼 교수는 이런 이유로 "가장 좋은 신발은 맨발"이라고 말합니다. 발이 스스로 움직이고 지면을 느낄 때 가장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맨발이나 밑창이 얇은 '최소한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의 발이 더 튼튼하고 아치도 건강했습니다. 굽이 높지 않고 지지대가 없으며 밑창이 얇아 지면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신발이 오히려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세연 교수의 자연의학도 같은 원리를 강조합니다.

사람은 이미 완성된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구조를 제대로 사용할 때 가장 건강해진다는 관점입니다. 몸 안의 천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인공적인 쿠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균형을 잡는 힘도 원래 우리 몸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스본스도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실제 사례로 확인됩니다.

한 회원은 무릎 통증 때문에 푹신한 운동화만 고집했지만, 스본스도 교육을 받고 바닥이 얇고 단단한 신발로 바꾼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느껴져 적응이 필요했지만, 며칠 지나자 발가락이 땅을 정확히 느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걷기가 한층 편해졌습니다. 걷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회원은 허리 통증이 심해 오래 서 있기 어려웠지만 신발을 바꾼 후 균형이 잡히고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발이 안정되면 몸 전체가 함께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세연 자연의학에서는 "건강의 시작은 발"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스펀지 위에 기초를 놓지 않듯이, 몸의 기둥인 척추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발이라는 토대가 단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푹신한 신발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단단한 지면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 몸의 균형과 안전을 지켜주며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힘든 분일수록 발이 지면을 제대로 느끼는 경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퇴행성 질환이 많아지는 시니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푹신한 편안함이 아니라 단단한 안정감입니다. 맨발처럼 지면을 정확히 느끼게 해주는 신발, 발의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자연스러운 걸음, 이것이 건강한 보행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은 밖에서 들어오는 쿠션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미 갖추어진 자연의 설계입니다.

발은 오랫동안 몸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발이 자연의 리듬을 되찾으면 몸도 마음도 다시 편안한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필
뉴욕스본스도연구원장
건강관리사/바른체형건강지도사
www.NYkss.com
nykssmoon@gmail.com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건강으로 고민하십니까?
텔로유스가 해답입니다.

최첨단 세포신호 신기술력으로 우리몸에서 3600%까지 줄기세포를 배출하여 10년이상 온 몸의 구조와 기능을 젊어지게 하는, 먹는 젊음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300상당의 파우더 1병 무료증정
$3,000 패키지 구매시 $1,200상당의 캡슐파우치 1개 무료증정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l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듬/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듬/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였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님: 심장수술, 췌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증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구입문의 및 북미 사업파트너 모집

TELOYOUTH
10년이상 앞선 생명공학 신기술로 몸의 구조와 기능을 젊게 회복하는 미래를 여는 혁신, 텔로유스와 함께 할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최적의 타이밍, 준비된 자에게만 열리는 기회의 문
teloyouth.com (영문) | teloyouthkorean. com (한국어)
동부 지역 필립 박 코치 & 센터장 516-540-9171 | 917-656-7717

2025 한눈에 보는 올해의 뉴스

〈1면에서 계속〉

뉴욕 타임스퀘어 물들인 한인 찬양과 기도

세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뉴욕 타임스퀘어가 한인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찼다. 6월 7일 열린 'Blessing USA' 캠페인 기도회에는 미주와 한국에서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했다. 채준성 목사의 소개로 시작된 집회는 김재열 목사의 대표기도와 박성민 목사의 '이제, 복음으로 뉴욕의 심장을 흔들자' 설교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은혜의 때임을 선포하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 강조했다. 가스펠아웃리치 고정민 장로는 뉴욕 광고판 'It's Okay with Jesus'를 비롯한 캠페인 현황과 일본 복음 전파 계획을 소개했으며, 허연행 목사의 축도로 집회는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궂은 날씨에도 거리 전도에 나서며 한인 디아스포라의 영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186호〉

제17차 세계한인선교사대회 성료

제17차 세계한인선교사대회(KWMF)가 2025년 7월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린도후서 6:1)라는 주제로 6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선교의 본질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엔드타임 선교'와 '360도 선교', '다중 네트워크 선교' 등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선교의 미래를 모색했다. 개회 예배와 영성 강의, 현장 중심 선택 강의, 저녁 성회, 여성 선교사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들의 영적 재충전과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켰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신임 공동회장 김종진, 박광수, 송상천, 장순현 선교사와 신임 사무총장 고덕현 선교사가 선출되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번 평창대회는 한국 선교사들이 전략과 영성을 재정비하고, 혁신적 선교 모델 확산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188호〉

할렐루야 2025 대뉴욕복음화 대회 개막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교협회장 허연행목사)가 주최한 할렐루야2025 대뉴욕복음화대회가 '네 장막터를 넓히라'(이사야 54:2)를 주제로 3일간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허연행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의 필요성과 세대, 지역사회, 교계로의 확장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며, 성령 충만 가운데 야곱세대는 예언하고, 이삭세대는 환상을 보고, 아브라함세대는 꿈을 꾸는 희망의 잔치가 되길 기원했다. 대회 첫날은 김한요 목사(어바인 베델교회)가 '시험 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를 주제로, 둘째 날은 마크 최목사(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광야에서 눈물 날 때'라는 주제로, 셋째 날은 이혜진목사(아틀란타 벧엘교회)가 '한 사람 찾으신다'를 주제로 설교했으며, 각 순서에는 찬양, 대표기도, 헌금, 축도와 장학금 전달이 포함됐다. 이어 9월 22일에는 목회자세미나가, 어린이대회와 청소년대회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협은 참석자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안내했다.〈190호〉

기독뉴스,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에 모금 3,000달러 전달

기독뉴스(발행인 문석진목사)는 10월 23일 오전 11시, 한국 최초 선교사 중 한 명인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브루클린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Lafayette Avenue Presbyterian Church)에서 '언더우드 파송교회 돕기' 모금 성금 3,000달러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교회 'Opening Doors' 건축 캠페인 공동위원장 데브 하워드(Deb Howard)와 데비 켈로그(Debbie Kellogg) 장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브루클린 Buckhorn Association의 1:1 매칭 그랜트가 적용되어 총 6,000달러의 지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후원금은 본당 보수, 환경 개선, ADA 기준 충족 공사, 115년 이상 된 파이프오르간 수리 등 교회 노후 시설 전반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석진목사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복음의 빚을 함께 갚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기원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어머니 교회'인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는 지역사회에 개방된 환대와 안전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 보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191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는 10월 31일 퀸즈장로교회에서 제3대 담임 고 김성국목사의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고, 11월 1일 발인과 하관예배를 거행했다. 예배에서는 설교와 기도, 추모영상, 찬양, 유가족 조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김성국목사는 암투병 중에도 열정적으로 목회를 이어간 신앙의 본을 남겼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명자 사모, 장남·차남과 배우자 및 손주들이 있다. 〈192호〉

선교지 소식

슬로바키아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

슬로바키아에서 사역 중인 전만규 선교사로부터 선교 현장의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에서 보내온 편지와 사진에는 전쟁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이 담겨 있다.(편집자 주)

'돌아갈 땅을 잃은 사람들, 작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소망'

전 선교사는 "여전히 공습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편지에서 나누었던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96세 할머니와 그 가족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고, 이제는 조야 자매(71세)와 입양한 딸(36세, 장애인)이 슬로바키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이들이 살던 고향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 전 선교사는 "사진 속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갈 곳을 잃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선교 현장에서 나누는 따뜻한 스프 한 그릇과 작은 관심 속에서 잠시 위로를 얻고 있다. 전 선교사는 "작은 사랑이지만, 이들에게는 생명을 붙드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굵직한 국제 정세 이슈로 가득 차 있지만,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쉽게 조명되지 않고 있다. 전 선교사는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현실은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찬란한 인생 컬럼 “사랑하고 사랑하라” Loving & Living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 참 고맙습니다!”

인진한 목사
찬란한 인생 재단 대표

뒷마당에 작은 채소 농장을 만들어 놓고 틈만 나면 들락거리며 행복해 하는 에녹은 언젠가 제법 근사한 정식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재배하는 채소는 근처 노인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을 위한 사랑의 먹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아파트를 방문하는 날이면 노인들은 모두 모여 에녹이 준비한 만찬을 먹습니다. 에녹이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노인들은 “사랑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 몸이 불편해서 서로 의지하며 힘겹게 움직이는 노부부를 도왔던 에녹은 가끔 마주치는 이 노부부와 반갑게 인사하며 지내다, 한번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노인 아파트에 초대되어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에녹은 여러 노인들이 마켓에서 장을 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노부부의 스쳐 지나가듯 들은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우연히 바라본 버려진 자신의 뒷마당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멋진 채소 농장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농부가 되어 채소를 재배하고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 후부터 노인들의 채소를 책임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의 채소를 수확하지만 일찍 여읜 부모님에게 해 드리지 못한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에녹의 주변 사람들도 뒷마당을 작은 채소 농장으로 바꾸는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깃든 채소를 재배해서 만든 음식을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대접하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지금 “사랑의 채소 농장” 농부가 되어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인도하는 멋진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지붕 처마 밑에 참새집이 생기더니 이내 새끼들이 조잘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어미는 벌써부터 바쁘게 집을 들락거립니다. 돌보는 세상, 어디서나 아름답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신념은 사랑하고 용서를 청하고 이해를 구하며

진실을 지키고 신뢰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눈에 내가 보이지 않고 온통 다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며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고 이해와 용서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일생의 숨쉬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주/애/칼/럼

자발적 디아스포라와 돌봄의 영성

이주애 목사
허름한미술관 & 영혼육상담실

디아스포라는 본래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다. 전쟁과 추방, 가난과 박해가 사람들을 중심에서 밀어냈고, 흩어짐은 견뎌야 할 고통의 역사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국면 앞에 서 있다. 이 시대에는 자발적인 디아스포라, 선택적인 디아스포라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속도와 효율, 경쟁과 성과가 삶을 압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중심을 떠나고, 의도적으로 변두리를 선택하는 추세이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종교 공간을 벗어나는 이들의 흐름 역시 단순한 ‘탈종교’ 현상이라기보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자발적 흩어짐’의 한 양상일 수 있다. 비근한 실례로, 그들은 교회 대신 콘서트장에서 형언키 어려운 영성의 떨림을 경험한다고 한다. 심지어 서로 모르는 이들이 경건한 숨결로 일체감을 맛보는 ‘흩어짐의 영성’을 경험한다고도 한다. 즉,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신앙 자체가 아니라,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는 형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에 이른 것 같다. 그렇기에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 운운하면서,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려는 전략보다, 이 흩어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 지점에서 나는 미국의 신학자 헨리 나우웬을 떠올려 본다. 그는 하버드와 예일이라는 신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캐나다의 지적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갔다. 그의 디아스포라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그는 그 공동체에서 지적 장애가 심한 다운증후군 아담에게 밥을 먹이고, 그를 돌보면서 심도 깊은 영성적 저서를 많이 남겼다. 그가 만약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에 머물렀다면 그의 이름이 이리 오래도록 회자되었을까?

나는 지금 지적 장애가 심한 다운증후군 딸 소영이를 돌보며 깊이와 넓이는 다르겠지만 그가 살아냈던 이 영적 구조를, 매우 다르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내가 아이를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가 나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교회를 가지는 못하지만 매주 교회를 가던 때보다 더 자주 소영 씨는 찬양을 듣고, 홀로 그림을 통해,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올린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숙연하여 어떨 땐 존경스럽기도 해 “와우~!” 소리가 절로 나온다. 가시적 성과와 효율로만 환산될 수 없는, 반복과 설명되지 않는 고요한 느림의 시간 속에서 그녀의 영성은 엄마인 나를 숙연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작은 목사님?” 하고 부르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네!” 하고 당연스레 대답한다.

그래서 나는 더 또렷이 말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만이 아니라, 이 시대 영성이 요청하는 하나의 선택적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새삼 되뇌어 본다. 어쩌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중심을 떠나 저 낮은 변두리로, 저 힘든 자의 속 중심과 깊이 관계 맺으라는 자발적 디아스포라와 돌봄의 영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켄터키 노아의 방주 + 아미쉬 마을 체험 여행

(ARK ENCOUNTER & AMISH EXPERIENCE)

"무더운 일상에서 벗어나, 믿음의 여름휴가로 초대합니다."

버스 패키지

2박 3일 / $650 (35명 출발 기준)
ARK ENCOUNTER (노아의 방주)
아미쉬 마을 관광 및 체험
(홈메이드 브레드, 전통 치킨, 애플버터, 파이 시식 포함)

공통 포함
노아의 방주(ARK ENCOUNTER)
아미쉬 마을 문화·음식 체험

항공 패키지

A코스: 1박 2일 / $700 + 항공 (6명 기준)
ARK ENCOUNTER (노아의 방주)
아미쉬 마을 체험 + 농장 마차 타기
오하이오 **성경뮤지컬 〈엘리야〉** 관람

B코스: 2박 3일 / $1,050 + 항공 (6명 기준)
A 코스 일정 포함
창조박물관 + 에즈버리대학 방문
오하이오 작은 스위스 마을
슈거크릭(Sugarcreek) 탐방

출발 일정: 7/9(목)-10(금) | 7/24(금)-25(토) | 8/12(수)-13(목) | 9/3(목)-4(금)

문의/신청 | 718.414.4848
718.354.5545
cbsnNY@gmail.com

주관 cbsn 뉴욕기독교방송 여행사업팀

후원 기독뉴스 | C ZONE

- 전 일정 문석진 목사가 직접 가이드
- 개별 가이드 청취 이어폰 사용
- No Tip/No Option

김/창/길/칼/럼

남기고 싶은 교회 역사 이야기(3)

WCC와 NAE 다툼인가? 합동과 통합의 분리는..

김창길 목사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창립목사

2025년도는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된 지 66년이 되는 해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50년에 감독 선출 문제로 호헌파와 총리원파가 갈라졌다가 1959년도 연합연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성장·부흥 일로에 있다. 한국 교회사를 볼 때 1959년은 예수교 장로회는 통합과 합동 두 파로 나뉘어지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호헌파와 총리원파로 10년 동안 나뉘었다가 하나로 통합된 해이다.

1959년도에 나는 고등학교 검정 교복을 벗어버리고 빡빡이 머리 위에 쓴 교모를 벗고 일생을 주의 종으로 헌원하기 위해 남산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장로회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 내가 다니던 서소문교회가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속했기 때문이다. 나의 고등학교 교목인 김창일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교나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가면 장학금을 주선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마다했다. 교목님은 고교 2학년 때 내 짝 김영봉이가 갑자기 중이염으로 죽자 나는 오랫동안 죽음과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며 고민과 고독에 헤멜 때 기도와 상담과 멘토링을 해 주시고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서금찬 서소문교회 담임목사님은 장로회신학교에 갈 것을 권면하셨고 노회 서기 서재신 목사님(왕십리교회)을 찾아가 경기노회장 추천서를 받아 주셨다.

그때 나의 친구 김천(합창반 반장, 충정교회 고등부 회장)도 함께 신학교 시험에 응시했다. 장로회신학교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특차시험이었는데 경쟁률이 3대 1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입시 과목은 성경, 영어, 국문학, 교양 상식 네 과목이었고, 교무과장인 계일승 박사와 몇 분의 교수들로부터 구두시험을 치렀다. 당시 8대 교장 박형룡 박사는 학교가 사용하는 건물이 조선신궁 터였고, 한국 교회의 정절이 유린당한 곳을 의미 있는 신학교로 바꾸려는 노력에 지인의 잘못한 소개로 로비스트를 잘못 만나 사기당하여 책임지고 사임하셨단다.

교수님들은 구두 질문에서 "제군은 합격한 후에 타교로 전학할 생각이 있느냐"는 생뚱맞은 질문에 놀라서 "아닙니다.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던 기억도 난다. 그때 나는 소명감에 불타서 대학인지, 갑종학교인지도 모르고 지원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 학교는 대학 인가가 없어서 학도병 혜택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한 학생들은 소명감에 뜨겁고 사명감에 확신이 차 있었다.

매일 드리는 경건회 때에는 학생들과 교수들로 자리가 꽉꽉 채워져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학생들은 노트에 교수님의 설교를 필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개 여학생들은 흰 저고리나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었고, 남학생들은 넥타이를 매고 양복 저고리를 입었다. 옷차림처럼 언행도 단정하고 경건했다. 그 가운데서도 나이 어린 나도 저절로 엄숙한 신학생이 되었다. 1학기 마지막 채플은 총회장인 노진현 목사님(부산중앙교회)이 설교를 했고 종강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갈라지기 전 마지막 전체 사진이 되었다. 2학기 개강하고 나서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둘로 갈라졌다. 그렇게 경건하고 신령한 학생들이 급변하여 몽둥이를 들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깡패로 변했다. 학교 도서관의 기물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고 학생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비방과 다툼이 터져 나왔다. 많은 학생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와 신학교와 교수들에 대한 반항심과 원망 그리고 절망으로 학교를 떠나 고향으로 가든지 타교로 전학하는 일이 생겼다.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WCC는 용공주의, 신신학, 천주교와 일치한다고 하면서 열렬하게 비판했다. NAE(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는 복음주의를 사수하는 정통 보수 운동이라고 하며, WCC는 구원이 없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WCC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교회 연합 운동이며 세계 기독교회들이 연합하여 사회 정의 실현과 선교 사역을 협력하는 세계 기독교 운동 중 하나라고 했다. 교회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사회와 교회 간에 바람직하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서로의 주장이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비난과 선동만 난무하였다. 나의 친구는 나에게 Karl Barth, Emil Brunner, Bultmann, Paul Tillich은 신신학이고 기독교 복음을 퇴색시킨 사이비이며 사탄이라고 했다. "친구야, 나는 아직 신학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고 그 신학자들의 신학을 모르니까 좀 배우고 그의 저서도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했다. 그래도 "WCC는 용공주의자야. WCC 안에 동구라파 공산국에 속한 기독교가 들어와 공산주의를 전파한다"고 주장한다. "자, 난 잘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나도 반대야. 나의 아버지도 공산당에게 순교당했다. 또 외삼촌은 공산당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하셨다.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사관이잖아. 나도 반대하지. 나는 천주교도 기독교의 한 분파로 생각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회 간에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잖아. 성모 마리아 숭배나 성자들 예배, 교황 무오설과 연옥, 교회 전통을 성경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 등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이지. 그러나 천주교의 좋은 점은 이해하고 틀린 점은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어떨까? WCC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교와 병원, 사회사업 기관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학과 교회와 사회를 넓은 폭으로 해석하여 세계 교회들과 협력해서 선교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959년 대전중앙교회에서 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차 총회가 파행되면서 양쪽은 서울에 올라와 합동은 승동교회에서, 통합은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속회하여 임원진을 뽑았다.

대전중앙교회는 당시 500여 명이 회집되는 교단 내 중진 교회에 속했다. 경기노회 총대 선출 과정에 부정이 있다는 문제가 총회까지 상정되어 문제가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WCC가 신신학이라는 신학적 이슈를 내걸었다. 경기노회 노회장 이환수 목사님은 한국 NAE 회장으로 황금천 목사가 총대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여 재검하여 찾아냈다.

교단 산하 노회나 총회는 양파로 갈라져 피투성이 나게 싸웠고, 어느 지방 교회는 목사를 강단에서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는 게 비일비재했으며, 또 어느 지방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오물을 퍼붓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교단 싸움에는 이미 성령이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놓여졌다. 교파 싸움은 악령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인선이나 투표는 정직해야 하고 공정하여 모두가 공감을 이루는 행사여야 한다. 사회와 국가 앞에서 교회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모본을 보여야 하며 파당적인 분파는 근절되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망한다. 교회는 인간적이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분열 이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생명력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고 사회에 버려져 손가락질받았다. 찬란한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주역을 감당했던 시절은 마감하고 분열에 분열이 이어지고 사회의 걱정과 조롱거리로 머물게 됐다. 이제 예수교장로회는 다시 본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미안하지만 선배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모두 그 교회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후배인 우리는 교회를 한 교단으로 통합시키고 하늘나라로 가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다음과 같다.

1. 복음적인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열려진 교회로 하나로 일치하며 오는 젊은 세대를 포용하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란다.
2. 한국 교회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는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신학과 국가관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바란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원을 합동과 통합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신학과 세계 선교 동역과 대정부·사회 관계 및 세계 교회들과의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 피차 사랑과 존경으로 이해하며 서로 감싸 주며 겸손하기를 바란다. 피차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편협과 옹졸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위해 대범하고 포용했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에서 오늘 교회를 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호/칼/럼

뉴욕에서 다시 읽는 이사야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대강절을 맞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사야는 무너진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밑둥 잘린 그루터기에서 싹을 돋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뉴욕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소망입니다. 불안과 긴장이 커지는 미국 사회, 날카로운 이민 정책, 얼어붙는 경제 속에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팔레스타인 땅에도 평화는 요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경의 땅에서도 샬롬(Shalom)은 여전히 기다림의 이름입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뉴욕에서 살아가는 이민교회는 이사야의 평화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민자들을 위협하는 정책 속에서 교회는 피난처가 되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기독교 시민 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훈련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교회는 은혜와 정의를 균형 있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후러싱제일교회는 이사야의 비전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자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동전 모으기는,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올해 완공 목표인 쿠바 교회 건축, 내년 라오스 여성 자립·평화센터 프로젝트 또한 무너진 땅에 소망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참여하는 선교, 그것이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교회 급식 프로그램은 단순한 음식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흐르는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자회를 통한 지역사회 구제도,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강이 되듯 하나님의 평화가 스며드는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이지만, 많은 이들은 외로움, 경제적 압박, 언어와 신분 문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교회는 아픈 자에게 치유를, 지친 자에게 쉼을, 낯선 땅에 선 자에게 품을, 소외된 자에게 따뜻한 복음의 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이 위로하고, 경청하며, 함께 울고,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뉴욕에서 다시 읽는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김/금/옥/칼/럼

"Credo 신앙고백"

김금옥 목사
에버그린장로교회 담임
정신신경과 전문의

필자가 뉴욕의 NYTS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 졸업 논문은 Credo(신앙고백)였다. Credo는 라틴말로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이며 사도신경, 니센 신경 등에서 읽는 것 같이 우리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독생자 예수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이다. 최근 뉴욕 크리스천 코랄 합창단이 그들의 제10회 정기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연주했다. 발표한 6곡 중 사도신경인 크레도 Credo는 세 번째 순서인데 합창과 독창이 포함된 관현악 편성이 웅장했다.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알게 되면서 신앙을 고백한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면 주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더욱 눈물겹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한다.

요새같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들이 언급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 왜냐면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인데도 어쩐지 부적절한 모습을 하는 분들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모습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에 부적절한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음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구주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분들은 교회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는 주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대단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을 만났고 회심한 그는 터키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면서 일생을 눈물과 회한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를 가진 사도 베드로도 주님이 부활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주께서 준비한 아침을 먹으면서 3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과 내 양을 먹일 것을 부탁받은 그는 성령강림 후 일생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다.

믿음이 돈독한 크리스천으로 자신을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들이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던지 아니면 아직도 변해야 할 과거의 모습이 있음을 보았을 때이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구주임을 알게 되면 그전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변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주를 만나 신앙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다.

오늘 믿음이 신실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은 좌절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분은 믿었다고 생각하던 분에게서 무시와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헤어질 것이라면서 분노했다. 필자는 그분에게 무조건 떠나는 것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으니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분의 마음은 상처와 분노로 확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멸감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그분의 평온한 마음을 무너뜨렸다. 이분이 경험한 상처는 깊었는데 어떠한 말로도 해결이나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분에게 좌절을 준 분의 말이나 행동은 크리스천이라면 보여주어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 이분이 그렇게 상처를 크게 받았음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의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좌절이 해결되고 평온을 얻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음을 알고 조심하고 주께서 산상복음에서 가르쳐 준 말들을 기억하고 보여야 할 것이다.

주를 만난 사람들은 달라져야 한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고백한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자세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옆의 동료에게 상처가 되고 주께서 원하는 하나가 되는 화합을 깨는 용서나 사랑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이 예배나 기도 모임 중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주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남들이 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서 달라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언어, 모습에서 아직도 누군가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한다면 이것은 신앙을 고백한 크리스천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배/성/현/칼/럼

청암 배성현 목사
예수아샬롬공동체

넌 무엇을 떨쳐내고 있느냐

수 십년 진액 퍼올린 후
이젠 괜찮겠다 싶었던 때

잘드는 톱날
여러가지 잘라낼 때

속울음 삼킨 나무
우지직 우지직 눈물 흘릴 때

떨쳐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무 상채기 변하여
먼곳 바라보는 눈이 되었을 때

거인이 된 나무
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느냐
긴 침묵으로 천둥칠 때가 있다

시로쓰는QT

"에브라임의 저울질"

여호수아 16:1-10

윤 석 목사
(서충주한빛교회)

가나안 족속을 아내라 하심은
면역력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우상의 뿌리는 뽑아서 멀리
담장 밖으로 던져라는 것이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아내지 아니하였음은
그들을 제압했으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함이라

유다는 여부스 족속을
아내지 못한 것이고(15:63)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아내지 않은 것이니(16:10)
못함과 않음은 다름이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이익을 저울질 하고 있느냐
불순종의 에브라임아
불순종의 에브라임아

배/임/순/칼/럼

배임순 목사
도르가의집 대표

성탄의 빛 아래서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 위로하는 빛 한 줄기.

한 해의 기쁨과 눈물, 모든 흔적 위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마구간에 스며든 작은 온기처럼
오늘도 당신의 삶속에
그분의 위로가 은은히 머물고,
희망은 새벽 별처럼 다시 떠오른다.

성탄의 평안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부드러운 숨결로 내려 앉고.
사느라 지친 그대 영혼에 찾아 온 위로,
흩어졌던 마음 조각들이
그분의 숨결 아래
다시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어지기를.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
천사들의 노랫소리 들리고
그 사이로 스며든 은혜와 위로,
기쁨이 피어나는 사랑의 속삭임

“임마누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셔
별빛보다 부드러운 평안과 안도감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기를……

음양한의원
Acupuncture & Herb Center
Yin & Yang Acupuncure P.C.
● 어깨 ● 허리
● 관절 ● 디스크
● 특수침술 ● 경락침술
● 혈지압 ● 안마
● 부황 ● 부인병
● 불임
Tel: 917-683-8786
33-08 Union St. Flushing, NY 11354(구 효성)

한/준/희/칼/럼

노인의 설움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

가깝게 지냈던 나보다 7살이 많은 선배 목사님과 2년 만에 만났다.

반가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은지 밥 먹는 손을 덜덜 떠는 것이 눈에 띄었다.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에서 먹었던 밥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좀 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나이가 드니까 별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언젠가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입가에 음식이 흘러요. 닦으세요." 깜짝 놀라 티슈로 입을 닦으면서 내가 음식을 흘리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몇 년 전 내 앞에서 손을 떨며 음식을 흘리고 있었던 그 목사님 생각이 났다.

늙으니까 똑같구나. 난 깨끗하게 잘 먹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 닦으면서도 가끔씩 치약 거품이 옷에 떨어지곤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든다.

확실히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 나이에 얼굴에 주름 한 점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목 주위에 주름이 보이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고 머리가 많이 빠져 영락없는 노인의 얼굴이다. 게다가 작은 체구에 웬 배는 그렇게 나오는지 내가 봐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배가 나왔다.

언젠가 같이 걷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아내가 비디오로 찍어 보내주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자세히 보니 등이 굽고 꾸부정한 노인 모습으로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자세히 보니 그게 나다.

나도 똑같지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보면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든다. 면도도 잘 안 해서인지 여기저기 얼굴 옆으로 흰 털이 삐죽삐죽 나와 있고 흰 콧수염이 길게 코 밖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머리도 단정하지 못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어린애들이 노인들이 오면 피하는 이유를 알겠다. 지저분하고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나고 입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난다. 어린애들을 보면 귀엽고 예뻐서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애들은 노인을 보고 그냥 슬며시 자리를 피한다.

그래서일까, 노인과 가깝게 지내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뭐, 몸이 늙어서 멀리하려는 것보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한다. 그것도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해서 듣고 있던 나도 짜증이 난다. 모 목사님은 젊었을 때 찍은 건강한 몸매를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벌써 몇 번째인가. 내가 보기에도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노인 목사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옛날에는 과거지향적인 시대였기에 어른이 집안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들을 어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었지 않았던가. 안방 중앙 벽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고 문중 어른들의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또 과거 것을 존중하다 보니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옛날에 쓰던 삿갓이나 옷들, 담뱃대나 오래된 장롱들이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더욱이 애들은 별 관심도 없었던 시대였지 않은가.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시대이다. 애들이 가장 귀한 존재로 취급받고 젊은 사람들로 많은 사업체가 운영된다. 20대, 30대 박사들이 의학, 과학, 물리학 등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아이디어로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 그런 시대에 노인들이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로 젊은 사람들을 이끌려 하니 당연히 젊은 세대들이 멀리하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도 못하고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 시대로 연결되어 물건 하나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변화된 금융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이만 가지고 권위만 세운다면 우리 노인 목사들은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할 일이 많지 않다고 해도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본다. 나는 매일 면도를 한다. 그리고 화장도 한다.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젊게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매일 관리를 한다. 얼굴도 끊임없이 관리하고 몸의 청결함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젊은이들 앞에서는 그저 들어주는 경청의 지혜도 가져보고, 많은 돈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줄 줄 아는 넉넉함도 있다.

몸도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 하고 식사 예절이나 배려도 젊은 사람 앞에서는 의식적으로 한다. 또 책도 꾸준히 읽는다.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글도 쉬지 않고 쓴다. 또 외국어도 틈만 나면 공부한다. 옷도 주로 밝은 색으로 입고 명품은 아니지만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듣고 산다.

누가 봐도 중후한 품격이 묻어나는 어른이 되는 것은 스스로 하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경험이다. 숱한 고난 속에서 만들어낸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노인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닐까 여겨진다.

걸을 수 있는 그때까지가 인생이라는데 그 걸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면 노년에 설움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이십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신 34:7)

최/재/홍/칼/럼

최재홍 목사
한기총미주총회 사무총장
글로발 리더십아카데미 대표

성탄절과 소년

치악산 아래 세찬 눈발 헤치며
새벽길을 총총걸음하던 소년
손엔 아버지가 쥐여준 작은 빗자루
목엔 어머니가 꽁꽁 둘러준 목도리
주머니 속엔 체온을 나누던 작은 성경책 한 권.

초록빛 교회 지붕 위
붉은 십자가가 새벽별처럼 빛나고
마당엔 성도들이 모여
연탄재를 흩뿌려 길을 만든다

너무나 추워서
인사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했지만
서로의 입김이 부딪혀
따뜻함이 피어오르던 아침.

예배당 난로에서는
젖은 장작이 불을 삼키다
자욱한 연기를 토해내고
성도들과의 기침 소리가
찬송처럼 번진다.

매운 연기를 헤집고
누군가 창문을 열면
파고드는 찬바람 소리조차
그날만은 한 소절이 되어 들려왔다.

소년은 긴 의자에 앉아
얼어드는 손끝으로 찬송가를 넘기고,
아버지는 난로의 숨을 고르고
어머니는 떨고 있는 소년을 감싸 안았다.

작은 예배당 안에서 부르는
성탄의 기도와 찬양은
종탑의 큰 종소리 처럼
더 멀리 퍼져나갔다.

예배를 마치고 문밖으로 나서면
세상은 다시 포근한 흰빛.
가족과 성도들 틈을 뛰어다니며
눈을 차고, 던지고, 맞으며
소년의 웃음은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번졌다.

그날의 성탄절은
찬바람도, 장작 연기도,
얼음장 같은 눈뭉치마저
소리 없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하루였다.

소년은 그 한복판에서
가족의 숨결과 성도들의 미소,
작은 예배당의 연기와 찬송을 한껏 품으며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자기만의 성탄절 추억 하나를
조용히 가슴속에 품게 되었다.

차콜온돌 charcoal ondol 친환경탄소복합소재

전통온돌의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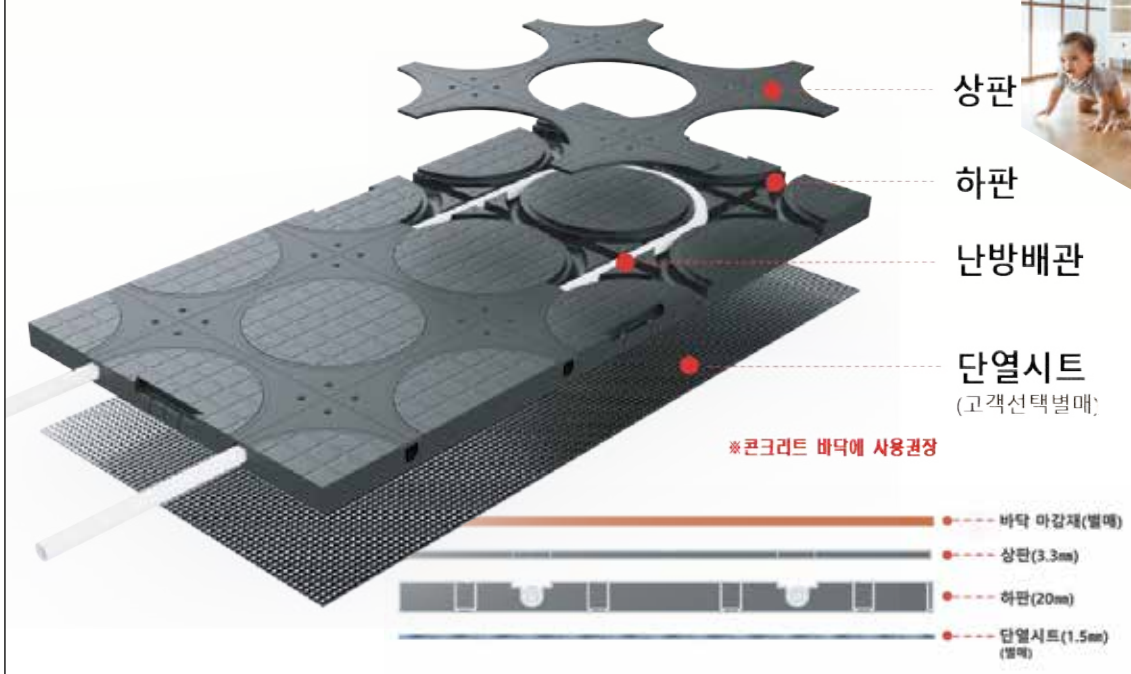
친환경 탄소복합 신소재 기능성 하이브리드 온돌방식

"자고나면 아침이 거뜬한 건강온돌 난방"

문의 및 상담
516-507-8158(Oscar Yom)
917-628-6139

www.us.srotech.com

기능성 하이브리드 온돌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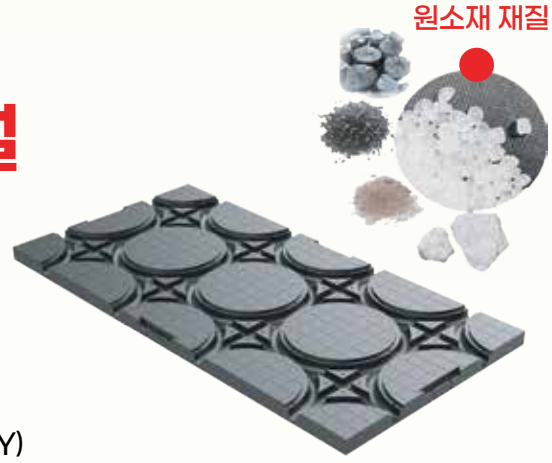
차콜온돌이란?

한국 전통의 구들장 난방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온돌 난방 시스템

차콜온돌은 천연광물로 만든 친환경 탄소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발산하며 공기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돌의 따뜻함과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옛날 구들장의 장점을 살려 만든 이 차콜온돌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차콜온돌 패널

원소재 재질



- 패널간 차별화된 결합방식 설계로 소음·들뜸 없는 견고함
- 기존 난방방식의 단점 해소로 획기적인 건식온수 실현
- 퍼즐식 구조로 쉽고 빠른 설치(DIY)

차콜온돌이 주목받는 이유

01 숯(Charcoal)의 효능과 천연광물질로 건강에 유익

02 재사용이 가능한 리사이클 소재

03 축열성, 복사열이 우수

04 높은 강도로 내구성이 우수

05 누구나 쉽게 셀프시공(DIY) 가능

06 보수가 쉽고 반영구적 사용 가능

07 꿀렁거림 및 소음이 없음

08 모든 마감재를 자유롭게 사용가능

김/명/욱/칼/럼

신앙, 성장 단계가 있다

김명욱 목사
기독뉴스 대표

신앙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흔치 않다. 신앙은 믿음인데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믿음은 자신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첩경, 곧 지름길이 되기에 그렇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독하거나 8만 4천 경을 간추려 요약해 발행한 불경을 통독해 보면 모두가 인생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글들임을 본다.

교회를 나가든, 절에 나가든 상관없이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났다면 한 번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성경과 불경을 권하고 싶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성서로부터 영감을 받아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는 말이 있다. 그런 대문호가 되기 위해 읽으란 말은 아니다. 신앙과 믿음을 알게 하는 책들임에 추천하는 거다.

사람이 태어나면 유아기와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과정을 거치듯이 신앙도 성장 단계가 있다.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라 하면 기독교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신약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뜻을 풀면, 신앙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적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른 같은 신앙인이 되라 함이다.

하버드대학 교수를 역임한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는 〈신앙의 단계〉(Stages of Faith)란 그의 책에서 신앙을 6단계로 구분한다. 1) 직관적이며 투사적인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 2-7세). 2) 신화적 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 7-13세). 3) 종합적이며 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 14-19세). 4) 개성화와 성찰의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 20-40세). 5) 접속적 신앙(conjunctive faith: 41-이후). 6) 보편화하는 신앙(universalizing faith: 극소수의 사람, 즉 성인의 단계) 등이다. 파울러는 6단계 중 4번째를 이분법적 양자택일이 아닌 양극의 일치를 받아들이는 성숙과 포용, 화해의 단계로 본다.

그런데 파울러가 지적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 따른 신앙의 성장 단계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 아무리 70-80이 된 나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나이는 첫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에 그렇다. 5단계는 초월, 6단계는 성인의 반열로, 너와 나가 없는 단계, 즉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단계가 된다.

지혜와 지식 중 지혜는 깨달음으로부터 온다. 깨달음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경험에는 자의와 타의에 의한 성(成)과 패(敗)가 근거한다. 또 지식은 배움으로부터 오는데, 배움은 학업과 혹은 선지식(先知識)이 지어 놓은 책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깨달음과 체험, 배움을 통해 자라며 커 간다.

과정신학을 있게 한 과정철학은 화이트헤드(Whitehead)가 창시자가 된다.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를 보면 관계(relatedness)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세상의 모든 것, 즉 인간 세계와 우주를 포함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등 모든 세상만물과 만사는 관계에 의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신앙과 믿음도 자신과의 관계성을 빼놓고는 성립이 안 된다. 불교신앙이든 기독교신앙이든 석가와 자신과의 관계,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를 떠나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나. 자신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고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처럼 신앙을 포함해 모든 것은 다 관계 안에 놓여 있다.

불경과 성경, "무슨 글인가"며 그냥 보아도 된다. 사도 바울, 장성한 사람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한다. 체험과 배움, 깨달음이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 우주가 팽창하듯 모든 게 과정과 관계 안에 있다.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신앙이 성숙된 믿음이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기독교의 목사가 왜 불경을 들먹이나"라고 질문할 수 있다. 불경에 없는 기독교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불경은 석가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해탈한다. 상당한 간극이 있다. 타력종교와 자력종교의 차이다.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신앙성장 단계의 궁극적 계단이다. 구원이 없는 불교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의 5단계 혹은 6단계가 되어야 예수의 제자인, 초월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독뉴스
www.kidoknews.net
NO. 193 / December 18, 2025

CZONE

기독뉴스는
미주기독교미디어 그룹(씨존)이
뉴욕에서 발행하는 주간 기독신문입니다.

KIDOKNEWS
IS A KOREAN CHRISTIAN
WEEKLY NEWSPAPER IN NEW YORK
PUBLISHED BY CZONE

발 행 인 | 문석진
대 표 | 김명욱
편 집 국 장 | 임병남
취 재 국 장 | 위화조
편집디자인 | 이제니

기 자 | 구라회

LA 지사장 | 신정현

한국지사
이 사 장 | 정도영
지사장 및 기자 | 이창배
기 자 | 이주애

〈OFFICE〉
170-0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Mailing Address:
PO Box 580445 Flushing, NY 11358

T. 718-414-4848
E-mail: KidoknewsNY@gmail.com

제일의 섬김과 제일의 가격

제일장의사

— First Funeral Home —

여러분의 귀한 사랑 과 추억을 함께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원하시는 어떤 장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플러싱
노던192가
강한가족의료원 건너편

리틀넥
노던 253가
체이스은행 건너편

롱아일랜드
1529 Hempstead
Turnpike, Elmont, NY 11003

24HRS 718-404-5252(오피스) | 718-249-3123(C)

Licensed Funeral Director 한응호 장례의 관한 모든 절차를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24시간 상담사무실 오픈
45-14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삼원각 건너편)

1529 Hempstead Turnpike, Elmont, NY 11003 (516)-305-4714 firstfuneralhome@gmail.com

뉴욕어린양교회

담임목사 박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EM Service 3부: 오후 2:30
영어학생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9:00
새벽예배: 매일 오전 5:30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718-899-8309 | www.nylfc.org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주일대예배1부: 오전 7:30
주일대예배2부: 오전 9:00
주일대예배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월~토):매일 오전 5:30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516-938-0383 | www.yalechurch.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현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347-502-2571 | www.nycdchurch.com

뉴욕한인중앙교회

담임목사 전진은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32-71 41st., L.I.C, NY 11103
718-956-3716 | www.kccny.net

뉴욕수정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EM Service3부: 오후 2:00
중국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EM기도회: 오후 8:00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718-461-9800 | www.nysoojung.org

뉴욕평화교회

담임목사 임병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예배: 오후 8:30
토요새벽기도: 오전 6:00

203-20 Rocky Hill Rd Bayside, NY 11361
718-962-5131 | www.nypeacechurch.net

뉴욕만나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00
주일 소그룹: 오후 1: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 6:00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917-392-7063 | www.nymanna.org

하은교회

담임목사 거스 김

하은1부예배: 오전 8:00
하은2부예배: 오전 10:00
그레이스예배(영어) 오후 12:00
주일학교: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수요기도회: 오후 8:30

201-03 29th Ave Bayside, NY 11360
718-352-1816 | www.haeunchurch.org

뉴저지세빛교회

담임목사 김귀안

주일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예배: 오전 11시
EM/Youth예배:오전 11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금)
토요새벽기도: 오전 6시

128 Stirling Rd, Warren, NJ 07059
908-350-3835 | www.sebitchurch.org

뉴욕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희근

주일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 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참여가능
(Zoom #246 507 6432)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917-254-0887 | heepark91@yahoo.com

뉴욕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이준형

1부 예배: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후 1:30
오후 예배: 오후 3:00
삼일 기도회: 수 오후 8:30

7618 4th Ave Brooklyn, NY 11209
718-833-4146 | www.ukcny.org

뉴욕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장동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오전 10:30
청소년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155-14 35th Ave. Flushing, NY 11354
718-352-6962(NYMC)

뉴욕신광교회

담임목사 강주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2:00
수요말씀강해: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금)
새벽예배(월-토): 오전 5:45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357-3355 | www.skcny.org

뉴욕빌립보교회

담임목사 박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기도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

154-02 35th Avenue Flushing, NY 11354
718-358-3200 | 646-413-8577

뉴욕방주교회

담임목사 김천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학교: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6:30(토)

34-57 Francis Lewis Blvd Flushing, NY 11358
718-812-5081 | www.nyark.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718-357-9199 | www.moakyang.org

퀸즈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그루터기청년예배: 오후 2: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0:30,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오전 9:30, 오후 2:30
러시아어예배: 오전 8:3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 kapcq.org

제자삼는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1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오전 11:00
한글학교: 오전 9:30
새가정반: 오후 1:00
영어예배(English Worship): 오후 1:00
금요예배 (Friday Service):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801 Hillside Ave, New Hyde Park, NY 11040
718-819-8237 / www.dmcofny.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토): 오전 5:30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229-0858 / www.nybaysidechurch.com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 허연행

장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장년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장년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영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영유아, 유초등부 오전 10:55
중고등부 오전 10:45
힐링캠프 장애우예배 오전 10:55
스패니쉬예배 오전 11:00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718-321-7800 | www.Promiseny.com

뉴욕주는교회

담임목사 김연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오후 12:00
EM: 오후 12:30
유년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토요한국학교 봄,가을 매주 토요일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917-770-5080 | 718-352-1603 | www.givingchurch.net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풍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사랑의 교실(장애인)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토): 오전5:45
수요예배: 오후 8:30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914-961-9250 | www.nydongsan.com

뉴욕십자가교회

담임목사 문신언

장년주일예배: 오후 1:00
(동시통역,온라인동시)
영아부/유치부/유초등부: 오후 1:00
Youth & EM: 오후 1:00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1:00(동시통역)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dens, NY11364(하크네시야교회당)
917-603-6086 | www.thecrosschurch.org

NJ복된교회

담임목사 신철웅

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28 W Demarest Ave Englewood, NJ 07631
201-227-9191 | www.blessingcc.org

(NJ)푸른초장교회

담임목사 김종윤

주 일 예 배 : 오후 12:30
목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 벽 기 도 회: 화-토 오전 6:00

118 Chadwick Rd, Teaneck, NJ 07666
(홀리네임병원 뒷편)
201-509-6166 | jyk3333@gmail.com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오후 2: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5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718-762-5756 | www.hyoshin.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청년예배: 오후 1: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EM): 오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5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718-672-1150 | www.kcqny.org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낮예배: 오전11:00
주일학교: 오전11:00
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
718-637-1470

뉴저지 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상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592-6004

뉴저지 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금요기도회(매월 1,3주)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5:40

309state St Hackensack, NJ 07601
201-342-9194 | www.sungdochurch.org

뉴욕그레잇넥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EM(청년부): 오후 2: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516-466-8063 | 516-570-6371

가족상담교육센터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소장 배임순

224 Main St #203 Metuchen, NJ 08840
732-213-7070

가나교회

담임목사 안병권

주일예배 오후 12:00
EM 예배 오후 12:00
새벽 예배 오전 5:30 (목-토)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30분
주일학교(영유아, 유 초등부, 중 고등부)오전 11시
토요새벽연합예배: 오후 6시30분(월-금)오전9시(토)
한국학교: 오전9시(토) **Youth Orchestra**(주일 오후 1: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562-691-0691 | www.nachimban.org

뉴욕로즐린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사무엘

주일예배 오전 10시 45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야배 오후 8시 45분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45분
(주일) 오전 8시 30분

108 Warner Ave, Roslyn Hts, NY 11577
516-317-3166 | samyjeby@hotmail.com

뉴욕참교회

담임목사 문덕연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8:30 **EM예배** 오후 2:2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199-03 32nd Ave, Flushing, NY 11358
718-575-1142 | www.chamchurchny.org

뉴욕충신교회

담임목사 안재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 2부 오전9시, 3부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중보기도회(매일)오후 9시
수요기도회 오후 시
금요찬양/심야기도회(1,2세합동)오후 9시

153-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718-359-0040 | www.choongsyn.net

뉴욕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성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삼일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9시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50분
산기도 매주 (화) 오전 9시 30분

149-03 Hawthorne Ave, Flushing, NY 11355
718-321-8581 | nydavid@hanmail.net

뉴욕말씀장로교회

담임목사 심재철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청소년예배 오후 12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432 Lakeville Rd. Lake Success, NY 11042
516-708-1517 | 917-364-6923 | revjchim@hotmail.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주일예배 : 1부 8:30AM **2부** 11:30AM
수요예배: 10:30AM **금요찬양기도회:** 8PM
새벽기도회 : 05:30AM (월-토)
EM, 유초등부: 1:30PM(주일)
성경대학 : 주일 1:30PM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310-515-1191 | 213-447-3118 | www.sunghwachurch.org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www.junimchurch.com
310-325-4020 | 310-325-4025(F) | jscoffice01@gmail.com

미주복음주의 장로회 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EPCA)

총회장 전모세 목사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213-700-4593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2부 영어예배: 9시45분 **주일3부:** 11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7시30분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시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213-381-2202, 9231 | 213-381-2535(F) | www.mpcla.org

뉴욕영안교회

담임목사 김경열

주일예배 오전 9시 / 2부 오전11시
토요성경공부(청년)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화-토) 6시
유,초등부(주일) 오전 11시 **수요기도회**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중,고등(주일)** 오전 11시

59-26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91-963-9356(M) / 917-678-2207(H)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시 30분
주일2부예배 오전 9시
주일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사예배** 오후 8시 30분

188-17 73rd Ave, Fresh Meadows, NY 11366
718-461-7835 | www.nyantioch.com

뉴욕한마음교회

담임목사 정양숙

주일예배 오후12: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30 **| 새벽예배** 오전 5:30

134 I. U. Willets Rd. Albertson, NY 11507
718-309-8200 | www.oneheartchurchny.com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저녁예배 매주(수) 8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50분
금요 기도회 매주 (금) 오후 8시 30분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718-358-6225 | www.nygethsemane.org

뉴욕한인제일교회

담임목사 송인규

주일 대예배 오전 11시
대학부, EM 영어예배 오전 11시
주요저녁예배 오후 8시30분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500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914-332-7640 | www.fkmc.net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장 방동섭 목사

(213)247-2936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213-384-5232 | www.holycityusa.com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박진하 목사

한달에 $30이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며 인생을 바꿀수 있습니다.

P. O. Box 540802. Flushing, NY 11354
917-667-8555 E-mail. breadngospel@gmail. com

사랑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진식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성경공부(월) 오후 7:30 | **(화)** 오후 2:30,
(수) 오전 10시, **(목)** 오전 9:30, **(토)** 오후 7시

14-1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718-813-3354 | changil2001@hotmail.com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323-737-3009 213-215-8523

에버그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금옥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Sharing Group: 주일 오후3시
청년부 모임: 토요일 낮 12시

208-37 32nd Ave, Bayside, NY 11361
718-614-4565 | www.epcny.org

에벤에셀선교교회

공동담임목사
최창섭, 이재홍

220-16 Union Tumpike, Bayside, NY 11364
718-570-5858(한어권) | 718-766-8625(영어권)

예수생명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30분

39-03 Little Neck Parkway, Little Neck, NY 11363
516-780-4525 | www.Jesusmylifechurch.org

주향교회

담임목사 김 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3412W. 4th St. LA, CA 90020
213-383-4951/4952

CMF 선교원

대표 김철민 장로

결혼 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www.cmfm.org | www. godfamily.com
562-483-0191 | 714-493-0191 | 562-684-4422

횃불선교교회

담임목사 하정민

주일예배 오전11시 **찬양예배**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8시 **금요야배** 오후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145-09 33 Ave, Flushing, NY 11354
347-804-2645 | jungha2645@gmail.com

팔복선교교회

대표 이추실 목사

1045 Old Academy Rd. Fairfield, CT 06824
203-339-1201 | www.yesunimchurch.org

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풍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 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213-393-9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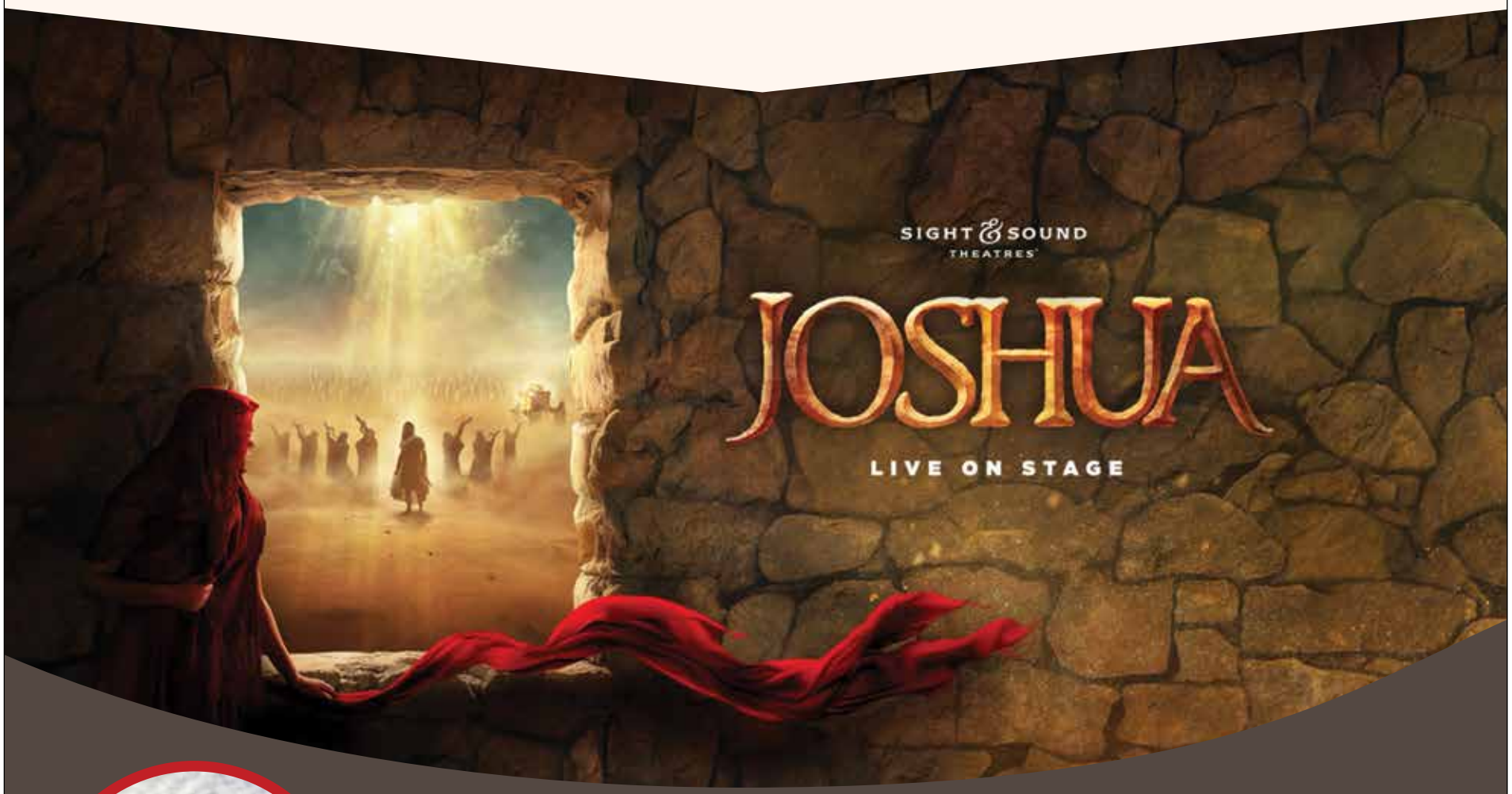
퓨리탄개혁신앙선교연구회 (PARMSC)

총재 이완재 박사

1311 N. San Bernando Rd, Unit 107 LA, CA 90065
818-245-0041 | Parac@gmail.com

erom
HEALTH CARE
이롬생식 미동부대리점 (염명재)
제품 문의 및 상담 917-628-6139

2026 성경뮤지컬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믿음의 대서사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2026년 최신작!**
3층 높이의 초대형 세트와 **360도 미디어월**, 강력한 특수효과로 구현되는
여리고 성벽 붕괴 장면을 만나보세요!

성경뮤지컬 여호수아 | 아미쉬 마을 체험(쇼핑)
홈메이드 베이커리, 꿀, 잼, 치즈, 올리브 오일, 과일, 야채, 샐러드 및 Gift 용품

$250 (차량, 식사, 입장권, 기사 가이드팁 포함)

3월18일(수) | 4월9일(목) | 5월29일(금)
6월20일(토) | 7월11일(토) | 8월15일(토)
9월24일(목) | 10월24일(토) | 11월12일(목)

● **접수 마감일:** 여행 한달 전(정원차면 조기마감)

- 재미와 감동, 힐링 여행
- 문석진 목사 '여호수아' 특강과 아미쉬 해설
- 개별 가이드 청취 이어폰 지급
- 한국어 자막기 제공(한정)
- 소그룹 단체 문의 환영

문의/신청: 뉴욕기독교방송 여행사업팀
718.414.4848 / 718.354.5545

주관: ebsn 뉴욕기독교방송 여행사업팀 후원: 기독뉴스 C ZONE